



## '적정 비료 사용', 무기질비료 수급 불안 해소 돌파구

- 농촌진흥청, '비료 사용 처방 적정 시비 실천 캠페인' 추진 결과 발표
- 2만 5,000여 농업인 대상 교육...현장 기술지원 3,700여 회 실시
- '흙토람' 활용 토양 검정 홍보, 액비 활용 확대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중동정세 장기화에 따른 무기질비료 수급 차질과 비료 원료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4월과 5월 약 2개월 동안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비료 사용 처방 적정 시비 기술지원 캠페인'\*을 추진했다.

\* '비료 사용 처방 적정 시비 실천 집중 기간' : 2026. 4. 8.(수)~5. 29.(금)

### <비료사용처방 적정 시비 실천 3대 실천 과제>

- ① 시비 처방서를 받고 비료 살포하기
- ② 유기질비료(가축분 퇴액비 등) 우선 활용하기
- ③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의무 등 농업 환경 보전 실천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인 비료 과다 사용을 개선하고, 토양 검정 결과를 토대로 토양 상태와 작물 특성에 맞게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주요 작목 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비료 절감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농가 맞춤형 지도를 강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업인 대상 교육(2,344회, 2만 5,242명)을 진행했으며, 지역별 적정 비료 사용 실천 결의대회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현장 기술지원(3,742회, 7,373개 농가)을 통해 작목별 생육 상태와 토양 특성을 반영한 비료 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토양 데이터 플랫폼 '흙토람'\* 활용을 독려했다.

\* **흙토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SIS)’ 상표명. ‘토양의 정보를 열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이와 함께 농협 비료 판매 담당자(전남, 경남 31명)를 대상으로 ‘흙토람’ 활용 비료 추천 및 적정 시비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비료 유통 단계부터 과학적 시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 기간 가축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 상태의 비료(액비) 활용도 늘어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 전국 154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액비 사용 처방 건수가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현장 교육과 기술지원(컨설팅) 참여 농가들은 “토양 검정 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라며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료사용처방서 가독성 향상, 토양 검정 관련 교육 추진 등 후속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경종 농가 대상 액비 사용 실태를 추가 조사해 비료 과다 사용 개선 교육 자료 등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장재기 팀장은 “비료 적정 사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환경보전 기여라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과학영농 기반 시비 관리 문화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비료 절감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운영 결과
- 2.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포스터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	책임자	팀 장	장재기 (063-238-1495)
		담당자	지도사	김동연 (063-238-1502)
				

# 붙임 1

##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운영 결과

### □ 추진배경

-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해 무기질 비료 수급 차질 등 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토양검정 적정시비를 통한 비료 사용절감 기술 확산 필요
- 지자체(도, 시군), 농업인단체 등의 자발적 실천운동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비료 사용 인식전환과 비료 감축기술 실천 준수

### □ 개요

- (캠페인명) “위기를 기회로, 비료사용처방 적정시비 실천”

- \* 농업인이 실천하는 토양검정, 적정시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퇴액비 활용 확대 집중교육·홍보
- \*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 협업을 통한 참여 붐 조성

- (집중 운영기간) '26. 4. 8.(수)~5. 29.(금)
- (참여기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센터, 농협, 농업인 단체 등
- (홍보방안) 각종 홍보 매체·지방농촌진흥기관(홈페이지)에 배너·팝업창 게시, 매뉴얼,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

### □ 주요내용

- (운영방법) 지역별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농업인대학·품목별 교육, 농업인 현장지도(작목별 담당자 협조) 등과 연계하여 추진
  - \* 토양검정 적정시비 실천 포어 및 결의문, 리플릿, 교육자료(PPT, 동영상) 등 활용
- (주요내용)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결의대회) 및 교육·홍보 등
- (역할분담) 농촌진흥기관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시도·시군·농업인·농협 등 유관기관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인센티브)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운영 우수기관 청장 표창 예정(4점)

기관별	추진역할
농촌진흥청	적정시비 실천운동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시달, 교육·홍보자료 제공, 실적과약 및 모니터링 등
도농업기술원	시도·시군별 적정시비 실천운동 추진, 시군 적정시비 실천운동 독려 및 실적집계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군별 결의대회·연사회·교육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시비 실천운동 추진, 교육·홍보실적 보고 등

## □ 걱정시비 실천 캠페인

- (슬로건) “위기를 기회로, 비료사용처방 걱정시비 실천” 전국 캠페인 전개
- (결의대회) 무기질비료 절감, 퇴액비 활용 확대, 공익직불제 비료사용기준 준수 실천
  - \* 3대 과제 실천을 위한 중앙단위(1회, 4.13.), 지자체·농업인 학습단체 연계 결의대회(154회) 개최
- (자료제작) 비료절감 기술 리플릿·포스터 및 매뉴얼, 동영상 자료 배부
  - \* 휴토람, 킬레이트제 활용(각 30,000부), 표준사용량 활용 매뉴얼(3,000부), 비료절감 이터닝(인적센터)
- (교육 및 홍보실적) 비료 사용처방서 활용 교육, 결의대회, 걱정시비 홍보 등

도(시군)	교육			홍보	
	횟수	인원(명)	주요내용	횟수	주요내용
9개도, 154시군	2,344회	25,242명	휴토람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등(작목교육 연계)	1,794회	결의대회, 언론홍보, 리플릿, sns, 현수막 등

## □ 비료사용 절감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 (현장기술지원 추진실적) 작목별 맞춤형 시비 기술 및 퇴·액비 활용 지원

구분	기술지원	주요내용
중앙(26명)·지방(154시군, 462명)	3,742회 7,373명	-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작목별 적정 시비 기술지도 및 양분 균형관리 - 비료 절감 실천 기술 지도 및 대체 자원(퇴액비, 미생물제 등) 활용 확대 - 토양검정 서비스 안내 및 휴토람 비료사용처방(표준사용량) 활용 방법 지원

## □ 액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 (액비 활용) 캠페인 기간 전년 대비 처방건수(34.7%↑) 및 처방량 증가(145.4%↑)

기간	처방건수(건)			처방량(톤)		
	2026년	2025년	증감	2026년	2025년	증감
4~5월(캠페인 기간)	66,236	49,177	+34.7%	1,261,580	514,042	145.4%

#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다함께  
동참해 주세요”



**무기질비료 절감**  
토양검정 후 적정시비



**무기질비료 대체**  
퇴·액비 활용 확대



**농업환경보전 실천**  
공약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촌진흥청